

“동생들 덕분에 전복양식 전문가 되고 인생 즐기는 법 배웠죠”



귀어 6년차 양형택(51·사진)씨의 성공 비결은 '가족'으로 압축된다. 양씨 삼형제는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며 진도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16년 동안 일한 양 씨가 귀어로 마음을 굳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기에 양 씨는 6년 전 귀어를 택했다. 명절에 진도대교를 지나 고향을 찾으면서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리라'고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전복양식 초보였던 양 씨에게 두 동생은 '선생님' 같은 존재였다. 삼형제는 각자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양 씨는 "고향이어도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귀어"라며 "동생들이 양식장 기반을 다지지 않았으면 지금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양 씨의 귀어자금은 퇴직금 1억 원과 울산 집을

진도서 전복양식장 운영 귀어 6년차 양형택 씨

울산서 16년 직장생활 마치고 귀어 퇴직금·집값으로 양식장 설비 투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2억 지원 받아 5~7cm 크기 전복 생산 폐사율 낮춰 대학 동문들과 사진동호회 활동도

팔고 남은 돈뿐이었다. 그는 양식장 설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와 지원을 찾아 다닌 끝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기술 교육을 받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귀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수온 현상으로 치패 400만 마리가 폐사한 불운을 겪었다. 전복 양식에서 '자연'이 가장 큰 변수라는 점을 깨달은 그

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양 씨는 그 다음 해 전복 종묘 300만 패를 생산해 내는 결실을 얻었다. 그는 수의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5~7cm 크기의 중간양성 전복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육상 양식장의 중간패 양성 비중을 70%까지 늘려 폐사율을 낮췄다.

양 씨가 제조업체에서 쌓은 경험은 큰 도움이 됐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쉽 없이 연구한 근성이 전복양식에서도 발휘된 것이다. 그는 육상 가두리 양식을 할 때 적정 수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등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양식 기자재의 소재와 구조를 바꿔가면서 효율적인 양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양 씨는 귀어하면서 결심한 것이 한가지 있다. 자녀들에게 각자 방을 한 개씩 주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그는 진도에 집을 지은 뒤 귀어했다. 진도에 정착할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던 자녀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됐다.



올해 처음으로 아내와 둘이서만 살게됐다는 양 씨는 새삼 세월을 실감하고 있다. 양식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그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골프, 배드민턴 등 스포츠가 취미활동인 그는 최근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조선대학교를 다닌 양 씨는 동문들과 사진 동호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고군 앞바다 풍경의 진가를 앵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일상의 행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며 "동호회 전시회에 낼 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어가 도시 생활보다 나은 점을 물었다. "여유로움"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매일 해 뜨기 전 일어나 일을 하지만, 일찍 시작하는 만큼 오후에는 여유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매력도 꼽았다. 양 씨는 "회사 조직의 경우 업무가 분업화돼 하는 일이 국한됐지만, 전복양식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자신이 종합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스스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글·사진=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 본격 활동

문화 예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광주 문화재단 문화예술자문위원회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최근 광주문화재단에서 '2018문화예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사진>

이날 위원회에서는 운영자문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재단 경영3기(2017~2020) 발전계획 등을

논의했다.

광주문화재단은 경영3기 중점 목표로 '생활 속 문화공간 확대', '역동적 예술환경 조성', '시민 중심 연대와 소통'을 설정했다. 위촉된 위원은 전통문화, 무용, 문학 등 장르별 전문가와 문화·예술계, 교육계, 언론계 주요 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이무용(전 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대 언어교육원, 화순향교서 외국인장학생 대상 유생체험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언어교육원(원장 이승권)이 최근 화순향교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유생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위대한 만남, 스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화순 향교에서 문화재청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2018년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전통예절(절하는 법, 속수례 재연 등), 승경도, 투호 등 전통놀이, 부채만들기, 과거시험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나우루즈(25·우즈베키스탄)씨는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며 "무엇보다



향교 등 전통 건축물이 자연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돼 한국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 프로그램은 세계 젊은이들을 초청해 학비·생활비를 제공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기회를 제공, 친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3일 광주 사직단오제

우리 옛 문화·멋 체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6회 광주 사직단오제'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향교 일원에서 열린다.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이 주최하고 남구가 후원하는 광주 사직단오제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옛 문화와 맛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거리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광주향교 안마당에서 휘호 대회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후 3시에는 광주향교 주차장에 설치된 주무대에서 기념식이 열리며, 식전 공연행사와 함께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봉사단 나주 양파농가 일손돕기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 신규 직원 봉사단 20여 명은 최근 영농철을 맞아 나주 지역 양파재배 농가를 찾아가 일손을 도왔다. <사학연금공단 제공>

화정1동주민센터 투호 등 전통놀이 예선대회



광주시 서구 화정1동주민센터(동장 노양재)는 21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관내 6개 경로당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호 등 전통놀이 예선대회를 치렀다. 본선은 오는 10월 초순께 열릴 예정이다. <화정1동주민센터 제공>

화순소방서 능주119센터 축사 화재예방 홍보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 능주119안전센터는 최근 한천면 이장단 월례회의에 참석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화순소방서 제공>

생활 게시판

하축

▲노진영(전남복지재단 이사장)·백희숙(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씨 전남 재명군 박희삼·장희경씨 장녀 소현양=23일(토) 낮 12시30분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55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정익교(뉴삼일관광 이사)·김명옥씨 장남 장현(한경KSP과장)군 김기주(현대삼호중공업 예비군 중대장)·조미숙씨 장녀 현정(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양=23일(토)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메종보네르 5층 그랜드볼룸홀 062-361-1122.

▲김익성(전(前) 광주일보 광고국장)·박윤순씨 장남 환석군 송재구·홍삼숙씨 장녀 경진양=23일(토) 오후 2시 청주 발리웨딩컨벤션 팰리세움, 전세버스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주차장에서 23일 오전 10시 출발.

향우회

▲제42회 재광화순향우회 정기총회=26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서석중고등학교 유당홀 사무총장 조종열 010-3709-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3038.

알림

▲시민강좌 '광주정신문화' 스토리를 읽히다=26일(화)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무문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학생탐 11) 2층 강당 062-514-1929.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차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

건강자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웰다잉(Well-dying)지도자 기본교육과정모집=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23일부터 매주 토요일(4회) 김대중컨벤션센터 010-4031-5880.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

-523-0474.

▲설원차문화연구원=늑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부음

▲김백례씨 별세 하태웅·태정·태웅·현숙·정숙씨 부친상 엄정희씨 시부상 오귀숙·정윤수씨 빙부상=발인 23일(토)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弔

본관4층 VIP정공 故이향임 님(여/78세) 子/子婦 : 김용수/김미영, 창수/천자선, 근수/김현주 女/婿 : 김도훈/김태홍 ◇입관 : 6월 21일 10:00 ◇발인 : 6월 22일 08: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13	신관3층 특302호 故노병재 님(남/87세) 子/子婦 : 노공설/이경애, 대열 女/婿 : 노연희/김진웅, 순옥/김원중, 선임, 현미 ◇입관 : 6월 21일 13:00 ◇발인 : 6월 22일 08:1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72
신관4층 특401호 故한기열 님(남/65세) 子/子婦 : 한상백/이미지 女 : 한기선 ◇입관 : 6월 21일 11:00 ◇발인 : 6월 22일 10:00 ◇장지 : 담양용연선영(화) ◇연락처 : 250-4473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